

지난주 침례 인수	2016년 인천 교회 나아갈 방향 모든 성도가 신성한 헌신 안에서 부흥되어 하나님-사람 생활을 살고 열매 맺는 해	2016 침례 인수
1명		1명
인 천 교 회 기 도 제 목		몸의 요청 기도 제목
◎ 2016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를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신실하게 가게 하소서. ◎ 다음세대를 건강하게 일으키소서. ◎ 새해의 인수 목표를 이루게 하소서. ◎ 새롭게 확장한 영종 지역을 축복하소서.		- 회복 안의 모든 성도들이 참된 제사장직분을 회복하게 하십시오. - 남한 땅에서 만 명의 다음세대 제사장들을 일으키십시오. - 남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새 길을 실행하여 새로운 부흥에 이르게 하십시오. - 북한 땅에 복음을 확산하십시오. - 교육관 건축을 위하여 모든 건축 과정을 인도하십시오.

♣ 교회소식

《현금 안내》

1. 2016년 복음에 이르는 교통(현금) 안내

① 약정 기간 : 2015.12.27(주일) ~ 2016.1.31(주일)

② 현금 기간 : 2016.1.3(주일) ~ 12.25(주일)까지(매월)

※ 기존 하시던 분은 동일한 번호로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 새로 하시는 분은 약정서에 작성하시어 현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 자세한 것은 약정서를 참고하거나 봉사자들에게 문의바랍니다.

《인천 교회 집회 안내》

1. 매월 첫째 화요일 기도 실행 안내

* 일시 : 12.1(화) : 몸의 요청 기도 참조

2. 자매 집회 : 2016.1.7(목) 오전10시 구월동 집회장소

3. 4지역의 영종그룹이 2016.1.3.(주일)부터 영종지역(7지역)으로 확장하여 모입니다. 1월 한달동안 가정에서 모이고 2월1일 부터 집회소에서 모입니다.

4. 인천 교회 책임 봉사자들 지역 섞임 방문 안내

인천 교회는 책임 봉사자들의 지역간 섞임을 위해 매월 1회 주일마다 서로 다른 지역의 주일 집회에 참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주 2016.1.10일(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5. 목회자 세미나 겨울 특강 (성경의 핵심)

① 일 시 : 2016.1.5.(화)~2.23(화) 오전 10시 ~오후12시10분

② 장 소 : 인천 교회 학생센터

③ 대 상 : 목회자, 복음친구, 성도들

④ 회 비 : 1월 10,000원, 2월 10,000원

6. 2015 겨울훈련 비디오집회(출애굽기)

① 일 시 : 12.23(수)저녁 ~ 2016.1.31.(주일)까지

② 장 소 : 각 지역별

* 실시간 집회와 비디오집회를 일원화하여 실시합니다.

《전국 및 해외 집회 안내》

1. 2016년 전반기 전국 전·현직 교직원 섞임집회 안내

① 일 시 : 2016.1.14.(목)~16(토)

② 장 소 : 성경진리사역원

③ 신청금 : 숙박 81,000원(2박3일), 52,000원(1박2일),
출퇴근 29,000원
(국민은행 658101-01-211780 인천교회)

④ 신 청 : 2016.1.6(수)까지 집사실로 신청

2 서울 전시간 훈련 중년 22기 및 정규 19기 졸업식 안내

①일 시 : 중년 22기 졸업식 : 2016년 1월 23일(토요일) 오전 10시

정규 19기 졸업식 : 2016년 1월 23일(토요일) 오후 2시

② 장 소 : 성경진리사역원

③ 신 청 : 2016.1.18(월)까지 집사실로 신청

《기타 사항》

1. 결혼 : 2지역 장수그룹 김현지자매 차녀 하은정자매가 1.9(토) 오후2시 국민연금공단건물 W웨딩홀 3층 에메랄드홀에서 결혼합니다.

2. 침례 : 4지역 진영훈형제(12/27 주일)

3. 이번주 아침부흥 진도 : 2015년 가을장로훈련 메시지5

* 참고

다음 아침부흥 추구는 겨울훈련메시지입니다.

추수감사절메시지는 개인추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집회 인수 현황 (2015.12.21.(월) ~ 2015.12.27(주))

지역	1지역(94명)										2지역(122명)										3지역(134명)					4지역(153명)										5지역(97명)					6지역(63)					계				
그 룰	학	인	용	신	정	간	구	만	장	부	주	정	연	동	정	송	가	석	신	가	정	연	동	정	송	부	정	신	효	계	영																			
인수목표	113										157										110					194										146					80					800				
주요상	15	18	12	17	25	7	11	14	17	17	12	19	18	14	37	34	36	27	17	10	10	15	23	12	13	9	11	9	12	12	18	35	23	21	20	16	16	11	663											
기 도	4	4	2	4			4		2		3	3			10	6	16	9	6	6	4	11	7	7	5	4	5	3	5	13	12	7	10	5	6	6	189													
그 룰	10	7	2	11	16	1	4		8		9	9			17	11	17	10	8	7	2	5	14	8	14	3	6	8	6	10	14	18	7	12	2	5		7	288											
아침부흥	11	6	3	7	8	1													8	4						7	8			10	23	16	13	13	5		8	151												
어린이	11										22										13					35										13					8					102				
아침노래											11										11					10																				32				
종교동부	8										7										14					15										24					13					81				

인천 교회 소식

WEEKLY LETTER OF CHURCH IN INCHEON

집사실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94번길 40

홈페이지 주소 : www.icchurch.or.kr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명절을 지낼 것이다’

(출애굽기 5장 1절)

2016. 01. 03. 16-01

032-566-0190 FAX 032-567-0190

E-mail : trilune@nate.com

생명은 사람이 누리도록 주신 하나님 자신임

마7:13-14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파멸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며,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비좁아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이 곧 생명의 근원이심을 보여 준다. 시편 36편 9절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다.

신약에서, 우리는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고, 육체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다(요 1:1, 4, 14).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직접 우리에게 그분 자신이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이것은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곧 생명이심을 뜻한다. 1장 4절에서는 생명과 빛이 하나임을 말한다. 8장 12절에서는 생명과 빛을 함께 연결하여 생명의 빛이라고 말한다. 10장 10절 하반절에서 주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라고 말씀하신다. 6장 63절에서는 더욱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라고 말한다. 이 구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시작하고, '영이요 생명이라'라고 하며 끝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 다음 로마서 8장 2절은 '생명의 영의 법'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생명과 영과 법이 내포되어 있다.

생명은 사람의 누림이 되기 위해 하나님 자신의 넘쳐 흐름임

시편 36편에서 하나님의 인자함과 하나님의 집의 살진 것과 복락의 강이 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풍성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풍성은 모두 그분의 생명 안에 있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만질 때, 하나님의 이러한 풍성도 함께 만지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누리고 충분히 맛보며,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달콤함과 하나님의 풍성을 체험할 것이다. 시편 36편에서 우리는 그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 안에 있는 풍성을 만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이며 하나님의 본질이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육체로 거하신다(골 2:9).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시다. 그분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요 10:10). 이것은 생명이 곧 하나님 자신임을 증명한다. 계시록 22장은 우리에게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자란 것임을 보여 준다(1-2절).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왜냐하면 생명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사람의 누림이 되실 때 그것을 생명이라 한다.

생명은 사람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 자신임

우리는 어느 형제 혹은 어느 자매의 생명이 정말 좋고 풍성하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십년 전에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아무런 의심 없이 믿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 주심으로 어느 형제의 겸손이, 어느 자매의 온유함이 생명의 풍성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시작했다. 1948년, 난징에 있을 때 허베이에서 온 한 자매가 있었는데, 성도들이 상당히 영적인 자매라며 그 자매를 나에게 소개했다. 그들이 그녀를 영적인 자매라고 말하는 것은 그녀의 생명이 매우 풍성하다는 뜻이다. 나는 즉시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단언하는지 그들에게 물었다. 그들은 모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들에게 만일 외적인 모습, 걷는 속도, 말하는 무게, 웃음의 많고 적음으로 한 사람의 영적인 생명의 충만을 단언한다면, 천주교에 있는 마리아상이 가장 영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 마리아상은 아주 조용하고 움직이지도 않으며 심지어 화내지도 않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생명이 풍성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이러한 외적인 상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기 바란다.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고 생명이 곧 그리스도이다. 생명 안에는 분명히 겸손도 있고 온유함도 있으며 조용함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겸손은 결코 생명이 아니며 대부분의 온유함 또한 생명이 아니다. 그러한 겸손과 온유는 단지 어떠한 행위에 지

나지 않는다. 참된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다. 반대로 행위는 사람 자신이다. 매번 생명에 관해 언급할 때마다 그것은 우리에게 누림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킨다.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처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당신이 만족이 필요하다면 그분은 당신의 만족이 되신다. 당신에게 온유함이 필요하다면 그분은 당신의 온유함이 되신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다. 반대로 행위는 사람 자신이며 사람이 만들어 내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다.

〈‘생명과 교회를 인식함’ 제2장에서 발췌〉

워치만니 연말편지

<< 워치만 니 형제님께서 한 해를 돌아보며 남긴 한 통의 편지 >>

우리는 또 한 해의 마지막을 맞게 될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공급하시고 재촉하시며 치료하시며 책망하고 채찍질하며 징계하셨는지를 돌이켜 볼 때 참으로 그분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 우리 자신이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더럽혀지고 실�했으며 거스르고 반항적이었으며 은혜가 부족했으며 불의하고 결함이 있으며 과실이 있으며 또 얼마나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 후회하고 한탄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의 역사에 이러한 검은 점이 없기를 얼마나 바랬습니까! 그러나 원함은 원함에 그치고 우리는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였습니다. 얼마나 가련한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아는 것은 우리 육체가 구제불능임을 믿고 더욱 큰 소리로 우리 주님을 찬송하게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이러한 실패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를 은혜로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 당신의 은혜를 잊겠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육신이 연약했던 것은 거의 모든 곳에서 아는 바였습니다. 또 세 지방에서는 제당의 장막이 이미 무너졌다는 와전된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이 때문에 저를 위한 중보기도가 전보

다 많아졌을 것입니다. 저에 관한 일들을 관심하는 분들에게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물론 지난 날들 동안 제 본래 힘이 많이 쇠약해지고 가벼운 일조차도 제 몸에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해의 많은 날들이 일하는 나날이었던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쉬어서 녹이 스는 것보다 수고하면서 믿고 의지하는 편이 낫습니다.' 약속의 힘은 필요로 할 때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니다. 이로 인해 내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매의 부족과 생명의 공허함과 영성의 진부함과 육신의 약함이 모두 하나하나 저를 부끄럽게 할 뿐입니다. 사실상 저 자신은 부끄러움 외에 아무것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선을 이룬다는 이 사실은 참되고 믿을 만한 것입니다.

이제 일년이 다 가고 내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새로이 자신의 부패함과 연약함과 더러움으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바 중임을 담당하기에 부족함을 느끼며 동시에 그분의 사랑과 신실과 지혜로 인하여 도리어 용기를 얻어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이며, 또한 그분이 책임을 지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1927년 12월 10일 니토생 [기독교보도 제 24기]>

새해의 영적 의미

말4:2 내 이름을 정의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1 보이는 육체는 보이지 않는 내용을 말한다

우주 안에 존재하는 창조와 관련된 모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위해 있다. 사람의 신체는 유형적인 겉질에 불과하고 사람의 영과 혼은 무형적인 것이지만 생명인 것이다. 우주의 체계도 그 외형과 내용을 가지고 있다. 태양계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에서 우리는 날과 달과 해와 계절들이 모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임을 본다(창 1:14, 계 21:23). 해는 하나의 상징이며 그 실체는 그리스도이다(말 4:2, 요 1:4).

2 해와 달과 날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기회들임

땅에 있는 생물의 성장과 생존은 다 해와 달과 날의 순환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 우주 안에 처음과 끝이 단지 일 년뿐이라면 생명의 기회는 단 한 번뿐이지만 다음 해가 있으므로 새로운 시작이 있다. 생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일이 그와 같다. 낙심하지 않는다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 한 해의 기회가 있을 뿐 아니라 한 달의 기회가 있고 하루의 기회가 있다. 하나님은 한 번 실패한 영원히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 다.

3 해와 달과 날은 모두 새로운 시작임

우리의 영적인 생명 안에는 또한 영에 속한 해와 달과 날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과하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날을 한 해의 첫 달, 곧은 시작이 되게 하셨다(출 12:2). 또 그들에게는 달의 시작이 있었느니라(민 10:10, 28:11). 그것은 중간 정도의 시작이었다. 그들은 또한 매일 아침저녁에 하나님께 경배했느니라(레 6:9, 12). 그것은 작은 시작이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해의 시작, 매달의 시작, 매일의 시작을 갖는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의 영적인 체계를 살펴본다면 우리는 성경 읽기, 기도, 복음 전파, 목양 등 모든 일에 영적인 해와 달과 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4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한 해를 보아야 함

우리는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외적인 장부만 정리해서는 안 되고 내적인 장부를 결산해야한다. 외적으로만 한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해서는 안 되고 내적으로도 한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해야 한다. 한 해의 마지막 혹은 한 해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 앞에 가져가 결산하고 깨끗이 정리하여 새로운 시작을 갖고 새로운 한 해를 보내야 한다.

5 해와 달과 날의 전환은 관계에 달려 있음

해와 달과 날의 전환은 모두 관계와 관련이 있음을 보아야 한다. 영적인 체현의 전환도 역시 관계에 달려 있다. 우리가 빛 즉 하나님을 만나면 전환이 있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다면 영적인 전환은 없는 것이다. 영적인 새해를 맞이하는 한 해의 시작에 주님의 임재 안으로 돌이키고, 그분의 임재를 추

구하며, 그분을 만나러 나오는 것이 참되게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다. 시간을 들여 자신을 열고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비추시도록 하면 그분께서 임하실 것이며, 이렇게 여러분이 빛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며,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을 만날 때 새로운 시작을 갖게 된다.

6 해와 달과 날의 전환은 죽음과 부활임

어떤 성도들은 연말이 되면 지난해의 생활, 일, 영적인 상태를 모두 조목조목 기도하고 살피며 점검받으므로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고 씻음을 받음과 동시에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로운 빛을 받고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약속을 받음으로 충만케 되어 새로운 시작을 갖는다. 이것이 해와 달과 날의 끝판과 시작인 죽음과 부활이다. 우리의 영적인 체현의 과정은 모든 것이 죽고 부활하고 다시 죽고 부활하는 노정이 다(골 3:13). 해와 달과 날의 전환은 첫째 빛을 만드는 것이며, 둘째 죽고 부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끝내고 시작하는 것이다.

7. 해와 달과 날의 전환은 하나님 자신께 달려 있음

A 어떤 성도들은 연말이 되면 지난해의 생활, 일, 영적인 상태를 모두 조목조목 기도하고 살피며 점검받으므로 죄를 자백하고 용서하고 씻음을 받음과 동시에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로운 빛을 받고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약속을 받음으로 충만케 되어 새로운 시작을 갖는다. 이것이 해와 달과 날의 끝판과 시작인 죽음과 부활이다. 우리의 영적인 체현의 과정은 모든 것이 죽고 부활하고 다시 죽고 부활하는 노정이 다(골3:13). 새해를 맞이하고, 새로운 시작을 갖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고 접촉함으로써 새해를 맞이한다면 새로운 시작을 갖게 될 것이다.

8. 세상 사람과 분별됨

세상 사람들은 단지 외적으로 새해를 맞이할 뿐 내적으로 맞이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내 산 아래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어 놀던 것과 같이 흥청망청 떠들썩하게 새해를 맞이한다.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출 32:4-6).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은 통회할 때이고 근심하고 슬퍼할 때이고 눈물을 흘릴 때이고 금식할 때이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모습이 황당하고 교회는 실패 가운데 있으며, 많은 죄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며, 주님의 뜻이 여전히 성취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각종 상황들로 인하여 근심하고 슬퍼하며 통회해야 한다. 에스라는 정월 초하루에 타락한 바벨론에서 나왔고(스 7:9). 그런 후 그는 거룩한 땅을 향해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했다(8:21). 이것은 바벨론 곧 타락하여 그들이 포로 되었던 땅을 떠나고자 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월초하루에 금식하므로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죄를 자백하며,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배풀어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대하시려 오늘 이후로 한 해의 처음 시작부터 실질적으로 영적인 한 해를 맞이하며, 주님 앞에서 과거를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갖기 바란다. 이럴 때 우리는 모든 것에서 승리하고 세상의 풍속을 이길 뿐 아니라 한 해를 보내는 세사적인 풍조들을 이길 것이다.